

프랑켄슈타인 (by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셸리)

편지 1

상페테르부르크에서

17XX년 12월 11일

내가 그토록 불길하다고 여겼던 이번 모험을 아무런 사고 없이 시작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 나는 어제 이곳에 도착했어.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사랑하는 누이동생인 네게 잘 지낸다는 안부와 함께 계획했던 내 일도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더욱더 확고해진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해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내가 벌써 도착한 이곳은 런던에서 북쪽으로 아주 먼 곳에 자리 잡고 있어. 페테르부르크 거리를 건자니 차가운 북풍이 뺨을 스치는구나. 그리고 그 바람을 맞으니 잔뜩 신경이 긴장되면서도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이런 기분 알겠니? 이 산들바람,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은 그곳의 몹시 매서운 기후를 미리 맛보게 해준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좋은 징조의 바람에 내가 꾸는 꿈은 마음속에서 더욱 강렬하고 생생하게 꿈틀거린다. 북극이 얼어붙은 황량한 땅이라는 사실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구나. 나는 언제나 북극은 아름다움과 기쁨의 땅이라고 상상하거든. 마거릿, 그곳에서는 지지 않는 태양을 영원히 볼 수 있단다. 그 거대한 원반이 지평선에 닿을락 말락 뜬 채 영원한 광휘를 흩뿌린다지. 누이야, 앞서 탐험했던 항해자들의 말을 믿자면 말이다. 그곳은 눈과 얼음이 유배되어 있는 땅이야. 고요한 바다 너머로 항해하다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된 그 어느 곳보다 경이롭고 아름다운 땅에 도착할 거야. 그곳의 산물과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일 테지. 분명 온갖 천체 현상들이 그 미지의 황야에 존재할 테니 말이다. 영원한 빛의 나라에서라면 무엇인들 기대하지 못하겠니? 어쩌면 나는 그곳에서 나침을 끌어당기는 경이로운 힘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 또한 오직 이번 항해에만 필요로 하는 수없이 많은 천체 관측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겉보기에 이상해 보이는 것들에 영구적으로 일관성을 지닌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 나는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는 세상의 한 부분을 보면서 굶주렸던 호기심을 실컷 충족시키고, 이제껏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땅에 발을 내디디게 될 거야. 이것들이 나에게 커다란 유혹의 대상이며, 그 유혹 때문에 나는 온갖 위험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마치 어린아이가 소꿉친구들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동네 강을 거슬러 탐험 여행을 떠날 때 느끼는 기분처럼 이 고단한 항해를 기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나 이 모든 상상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현재 몇 개월이 걸려야만 갈 수 있는 그 영토들로 통하는 북극 근처의 항로를 발견하거나 자석의 비밀을 밝혀냄으로써 - 가능한 한 광산 채굴 같은 일을 해야만 밝혀낼 수 있겠지만 - 앞으로의 모든 후세대에 이르는 전 인류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혜택을 주게 되리라는 점에는 너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거야.

4장

11월의 어느 음산한 밤, 나는 마침내 노고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나는 거의 고뇌에 이를 정도의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에 있던 생명의 도구들을 끌어모았다. 이제 그것들로 내 발 앞에 놓인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의 불꽃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새벽 한 시였다. 빗줄

기가 음산하게 창문을 두드렸고 초는 거의 타들어갔다. 그 순간 나는 반쯤 사그라진 촛불의 희미한 빛을 통해, 그 피조물이 흐리멍덩한 노란 눈을 뜨는 것을 보았다. 놈은 거칠게 숨을 쉬었고, 발작을 일으키며 사지를 꿈틀댔다.

이 참상을 보고 느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토록 엄청난 노고와 정성을 다해 만든 그놈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놈의 사지는 적당히 균형이 맞았다. 하나 나는 그것만이 아니라 놈을 아름다운 용모로 만들려 했다. 아름답게! 아, 맙소사! 놈의 누런 피부 아래 움직이는 근육과 동맥들이 거의 다 드러나 보였다. 검은 머리칼은 윤기를 내며 흘러내렸고 이빨은 진주 빛깔처럼 희었다. 하지만 이처럼 다채로워 보이는 모습은 희끄무레한 눈구멍에 자리 잡은 그 눈구멍과 거의 비슷한 빛깔의 축축한 눈과 쭈글쭈글한 피부, 그리고 불거진 새까만 입술과 대조를 이루어 더욱 섬뜩하기만 했다.

다양한 인생사도 인간의 감정만큼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 나는 거의 2년 동안, 생명이 없는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것을 위해 나는 휴식과 건강마저 잃고 말았다. 나는 절제할 수 없는 열정으로 간절히 그것을 갈망했다. 하지만 막상 일을 끝내자, 아름다운 꿈은 사라지고 숨 막히는 공포와 역겨움이 엄습했다. 내가 창조해낸 존재를 더는 참고 볼 수가 없어서 그 방에서 뛰쳐나왔다. 그러곤 오랫동안 침실을 서성거렸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침내 피로가 몰려들면서 격한 마음이 겨우 누그러졌다. 나는 잠시라도 모든 것을 잊고 싶어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몸을 던졌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실 잠이 들긴 했지만 아주 사나운 꿈에 시달렸다. 엘리자베스도 보았던 것 같다. 그녀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잉골슈타트 거리를 걷고 있었다.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나는 그녀를 쫓아냈다. 그런데 첫 입맞춤에 그녀의 입술은 죽음의 빛깔인 납빛으로 변해 버렸다. 그녀의 모습이 변하더니, 내 품에는 죽은 어머니의 시체가 안겨 있었다. 어머니는 수의를 입었는데, 그 옷, 플란넬 천의 주름 사이에서 구더기들이 꿈틀거렸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꿈에서 깨어났다. 이마엔 식은땀이 이슬처럼 맺혔고 이빨들이 서로 딱딱 부딪쳤고 사지가 부들부들 떨렸다. 그때, 나는 창의 덧문 사이로 들어오는 어스름한 달빛을 통해 그 추악한 놈, 내가 창조해낸 끔찍한 괴물을 보았다. 놈이 침대 커튼을 걷어 올렸다. 그러곤 놈은 두 눈—그것을 눈이라고 한다면—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는 턱을 움직여 입을 벌리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고 뺨에 주름을 잡으며 씩 웃었다. 그는 뭔가 말했을 테지만 나는 알아듣지 못했다. 나를 붙잡으려는 듯 놈은 한 손을 뻗었지만 나는 도망쳐, 재빨리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나는 내가 살던 그 집에 딸린 안마당으로 피신하고는, 안절부절못하며 밤이 새도록 그곳을 서성였다. 내가 너무나 서툴게 생명을 부여했던 그 악마 같은 시체가 다가오지나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운 채 귀를 기울이며, 단 하나의 소리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매번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아! 산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 무시무시한 얼굴을 견딜 수 없었으리라. 미라가 다시 살아 움직인다 해도 그 괴물처럼 참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미완의 상태에서 괴물을 찬찬히 뜯어본 적은 있다. 그때도 흉물이었다. 하지만 그 근육과 관절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자 단테도 상상 못 했을 괴물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은 불행에 싸여 보냈다. 가끔은 맥박이 너무 빨리 심하게 뛰는 바람에 요동치는 혈관이 한 줄 한 줄 다 느껴질 정도였다. 나른하고 기운이 다 빠져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다시피 할 때도 있었다. 공포심과 뒤섞인 쓰디쓴 낙담으로 뼈가 저렸다. 그토록 오랜 시간 내게 양식이자 행복한 휴식이었던 꿈들이 이제 지옥이 되어버렸다. 참으로 급작스러운 변화였고, 참으로 철저한 전략이었다!